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國府統一工作의 一步前進 —西南派의 潰滅에 際하야—

一

一戰은 不可避할 듯하든 國民政府와 西南派의 對立은 西南派의 軍事的中心人物 陳濟棠氏의 自進的 中央服從에 依하야 克服되고 마럿다. 陳氏의 中央에 對한 降服은 無益한 犧牲을 내는것을 念慮한까닭이 理由가되엿는데 軍勢와 輿論의 不利를 計算한 後에 비로소、內戰이 無用한 犧牲인을 깨다랏다는것은、그 最初의 抗日反府氣勢와 比하야 너머나 急轉直下的인 論理의 發展임에 놀나지 안흘수업다。陳濟棠氏의 豹變에 抗日反蔣의 初志를 犧牲하고 困難한 立場에 서게된 사람은 廣西派의 李宗仁 白崇禧 兩氏이다。이 西南派將領의 一聯의 自體分解로 因하야 비로소 能히 西南問題解決에 한거름 내드되게 된사람은 蔣介石氏이다 孫子의 兵法으로보면 陳濟棠氏의 下野는 所謂三十六計에 該當한者니 不戰而勝이 孫子兵法의 上乘이라면 不戰而逃도 이境遇에는 亦是上乘이엿다할것이다。都大體中央對西南의 鬪爭이란 民主主義對獨裁主義、抗日主義對親日主義의 鬪爭과가튼 外觀을 가젓섯지마는 實際上으로는 蔣介石氏와 西南派將領間에 歷史的으로나려온 個人的葛藤과 權勢의 分爭에不過하엿든만큼、不戰而勝하고 不戰而敗한것은 中國國民을爲하야 多幸한 때어 틀레이엿다할것이다。

二

近代中國의 軍閥混戰이 中國國民에對한 誅求의 原因이되고 農村疲弊의 根本이되엿슴은 世人이 周知하는바이다。그러나 今回의 中央對西南對立이 干戈를 交할餘地도업시 一定한 軍隊에依하야 脆弱하게도 解消되고말것에 依하야 例示된바와가티 中國의 最近事情은 軍閥混戰이 演行되기困難한 事態에 잇다는것을 指摘할수가잇다。이에對하야는 蔣介石氏를 中心으로한 國民政府의 統一政府로서의 實績이 노파지고 軍勢가또한 地方軍閥에比하야 大風에 흔들리지안는 巨木과가티 毅然한 存在가 되엿다는것을 새로운 事態의하나로써 들것이다。勿論이것도重要한事實이다。그러나 이보담도 軍閥混戰에對한 最大의 軍隊과 障碍는 中國國民의 一般的인政治的進步이다。中國國民은 現下 中國의 困難한 內憂外患中에잇서 同族相殘만을反復하는데 無意義的으로 追隨하도록 그러케 그대로 無智한狀態에 노혀잇지안케된까닭이다。이中國國民의 統一을 爲한 歷史的心意의 推進力이된者는 滿洲事變이다 一九三一年 九·一八事變爾後에 數次發展된 北中將領과 西南派의反中央運動은 그어느것이나 軍事的衝突에 이름이업시 國民의國難來와 內戰反對의 呼聲中에서 消滅되고만것을 想起하면 中國의 軍閥混戰은 一九三〇年의蔣閻在北方國民政府와 南京政府와의軍事的大衝突을 軍閥混戰의最後의 클라이막스로하고 今回의 不戰勝負의 때에 종말을 最後의 「종노로하엿다할것이다。國府統一工作의 一步前進이란 中國國民의 政治的一步前進의 賜物이다。

三

陳濟棠氏의 下野外遊、李 白兩氏의 下野、西南政務委員會、國民黨西南執行部의 廢止에 依하여 國民政府는 宿年의 懸案인 西南問題가 自然解決되는 過程으로 들어서게되고 同時에 內政上의 重要案件인 統制統一도 어느程度에 實現할수 잇게되엿다。北中國의 共產黨問題等 頭痛거리가 만흔 國民政府에 西南問題가 이러케 쉬사리 解決되엿다는것은 蔣介石氏나 어떠한 個人의 實力內上의 結果라는것보다도 中國國民中에는 內戰에는 不滿을 분子가 壓倒的으로 多數에 達하고잇다는 歷史的事實의 勝利라고 할것이다。

日本을假想敵으로 國防强化를協議

英米獨의親交로日本을牽制

廬山會議討議內容

依然遠交近攻政策

蔣介石氏

【上海二十五日發同盟】蔣介石氏는 廬山에서召集한國防會議에關해서는 一切發表를 避하고잇는데 會議의內容에關하야 確聞한바에依하면 會議의目的은 軍事的으로는 日本을假想敵國으로하고 外交的으로는 英米獨等의 親交關係增進에 依하야 日本牽制를 主眼으로 하는것으로 川越大使가 着任同時에 表明한 日中經濟提携는 容易히 그實現可能性이 업는것이 明瞭하게되엇다 此際에 中國이 蔣介石氏를 中心으로한 國府首腦部는 日中關係打開에 積極的으로 進出하는것은 結局 中國自身을 不利하게 할뿐 아니라 日中關係를 今日以上으로 複雜尖銳化하게할 憂慮가 잇다고 問題의 解決을 可及的遷延하야 그동안에 國力充實과 英米獨蘇等의 關係를密接하게해서 目前의 急務인 國民政府의 實力을 充實히하고 國防强化擴充에 邁進할박게업다는 見解에 到達한 모양이며 歐米의 物資輸入에依한 國防資材整備로부터 다시 一步를 進하야 某某國과의 秘密軍事協定締結을 促進할 意圖라고 解釋되어 同會議의 推移는 駐中官憲은 勿論 列國도 자못 重大視하고잇다

大藏當局의 金融統制根本方針

【東京電話同盟】地方銀行의 中央銀行合倂은 어미 馬場藏相이 去特別議會에서 言明한바인데 今回 가장 合倂이 至難타고보이던 東京農工銀行을 勸銀에 合倂한 것은 馬場藏相이 意圖하는 金融統制方針이 相當히 强硬한것으로 時機를보아 今後 着着實施를 圖할것으로 豫想되어 자못 注目되고잇다 그런데 大藏當局에서는 馬場藏相의 意圖에 따라 所謂 金融統制의 具體案을 研究中인데 大藏當局의 企圖하는 金融統制의 根本方針이라고도할것은 第一로 地方銀行과 特殊銀行과의 連繫를 密接히함에잇서 農工銀行의 勸銀合倂或은 普通銀行의 一縣一行主義도 모다 이方針에 則한것으로 藏相의 稅制改正方針에 잇서서도 傾向을 가리하야 말하자면 中央集權的金融統制를 斷行함에 잇다고보이며 또 日銀 勸銀 興銀等의 特殊銀行도 各各 그機能에 應하야 中央銀行으로서의 命令的關係를 緊密케하야써 國民經濟의 現狀에 卽한 金融機關의 新設充實을 圖할 模樣으로 그動向은 各方面에서 注視하고잇다

航空兵團新設

陸軍의 國防充實을 爲한 組織强化와 軍備擴充의 一表現으로서 去二十四日 陸軍機構의 一部를 改正하야 이를 發表하엿는데 昨二十五日에는 다시 航空兵團新設에 關한 航空兵團司令部令이 公布되엿다。航空兵團은 從來 各師團에 隸屬되어잇던 各飛行聯隊를 航空兵團에 統合하고 參謀本部、敎育總監部、陸軍省과 直接連絡을 取하야 航空에 關한 諸般事務를 處理하는것으로 말하자면 航空省新設의 前提라고 보인다。

西班牙의 叛亂

去十八日 西領모록코에서 突然勃發한 叛亂은 모록코에 끈치지안코、西班牙全國에 蔓延하야 方今 大動亂化하게되엇다。勿論 이는 現左翼政權에 反對하는 右翼諸派와 王黨派에 屬하는 軍部가 結託한 計劃的叛亂으로 키로가內閣의 高壓政策과 王黨派首領 元藏相소텔로氏의 暗殺이 그發端이 되엇다고는하나 西班牙의 左右兩勢力의 消長을 살펴보면 또한 必然的인 現象이다。叛亂狀況은 報道와 觀測이 區區하야 眞相을 捕捉키 困難하거니와 다만方今 首都를떠난 四五十킬로의地點에서 兩軍이 首都의 攻防戰에 全力을 다하고잇는것은 明白하며 政府가 英佛에 援助를 要請한것으로서 政府의 弱點을 推測할수잇다。果然 팟쇼派의 마드리드進軍은 成功할것인가?

西叛亂國際問題化

西班牙의 叛亂의 背後에는 佛伊가 잇지안는가 疑心되고잇는때에 마츰 西班牙가 英佛에 援助를 要請하엿스나 英은 拒絶하고 佛國에는 人民戰線派의 立場에서 援助한다는 說이 傳하야 國際間에 큰 波紋을 이르키게 되엇다。萬若 佛國이 援助하면 獨伊도 叛亂軍을 援助할것이며 또 居留民保護를 理由로 英米獨伊諸國이 軍艦을 派遣하야 그周圍에는 微妙한 空氣가 釀成되어 一步를 그릇하면 장차 어떠한 國際問題가 展開될는지 알수업는 狀態가되엇다。이에 西班牙叛亂은 國際問題로서 더重大하게되엇다。

로카르노豫備會商

로카르노會議豫備會商은 去二十三日부터 倫敦에서 英佛白三國代表參席下에 開會되엇는데 會議終了後發表된 콤뮤니케에 依하면 會議는 圓滿한 進捗을 보엿다고하며 獨伊를 加한 五個國會議의 議題를 決定하고 西歐安全保障組織에 關하야 三國代表의 意見이 完全히 一致되엇다고한다。

海峽條約調印

約一個月동안 英蘇意見對立으로 遷延되어오든 몬트로會議도 英國代表의 讓步로 妥協이 成立되어 드디어 去二十日 시톤城에 關係十個國代表 出席下에 調印式이 擧行되엇다。新條約案은 全文四編二十四條外에 附屬書四編及 議定書一部로 構成되엇는데 土耳其政府는 新條約으로 卽時 海峽再武裝에 進出할 權限이 賦與되어 二十一日 土軍隊는 海峽으로 進駐하여 大戰後十餘年間 無防備狀態로잇든 다다넬스는 再武裝되게되엇다。

단치히獨裁化

단치히市參議院議長 그라이저氏는 去十八日 「公共安全과 秩序維持에 關한 緊急命令을 發布하야 個人의 自由、言論의 自由에 大制限을 加하게되엇는데 이는 近近 人民議會를 解散하고 選擧를 行하야 三分之二以上을 獲得하고 憲法改正을 斷行하려는 나치스의 非常手段이라고 보인다。

兩廣問題解決

兩廣의 獨立運動으로 內亂發生이 豫想되든 西南問題도 蔣介石氏의 謀略으로 陳濟棠氏가 香港으로 亡命하고 余漢謀軍의 入廣으로 廣東一角이 崩壞되는同時에 廣西의 李宗仁 白崇禧兩氏도 事勢不得已하므로 妥協條件을 提示하고 交涉中인데 蔣介石氏는 兩氏의 下野를 强要中이다。如何든 西南問題는 陳氏의下野로 急轉直下解決되게되어 中國統一問題의 癌 西南은 드디어 中央政府의 掌中에 歸屬되게되엇다。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 新義州商議總會에 臨席하고 同地產業狀況 視察次 二十六日午後三時半發로 平北에 赴하엿다 八月二日歸任豫定

日曜氣配

▲期米 降雨期의 各地低에 氣配十錢低이다 當、先限의 據大據線이며 天候如何에 달렷다

▲株式 日產中心으로 比低訂正의 强調를 보이고 잇스나 全般的으로 政策具體化待望이 賣方躊躇模樣、目前保合

大新 六六、八〇 新東 一三四、〇〇 鐘新 一五六、〇〇 日產 九〇、五〇

八面鋒

西班牙의 叛亂은 팟쇼對人民戰線의 葛藤이 暴露되고、獨佛의 對立이 表現되얏다고。

◇左右의對立 또는衝突은 人類歷史의걸어오든길、而今에 놀낼것은아니나 正立의境涯에 서지못하는데 平和의哀訴가自在。

◇明年度朝鮮總督府豫算은 各局의要求總額이 四億五六千萬圓에達하리라고。

◇숨숨이가 느는대로 負擔도늘을것은明若觀火、公債라할지라도 빗은빗이니걱정。

◇一年間賭博으로 檢擧된件數가 三萬餘件이라든가。

◇、賭博과勝負는 사람의本能中한가지라는말도잇지만、實職과實業에因緣업는 人民이 얼마나 만흠을 證明하는記錄。

武器輸出不許可

佛國務會議可決

國際問題化를憂慮코

【巴里二十五日發同盟】佛國政府는 二十五日 에리제宮에서 르브랑大統領司會下에 國務會議를開하고 먼저 불룸首相、델보外相으로부터 倫敦五個國會議의 經過를報告하매 全員이 一致하야 取한態度를 承認한다음 西班牙의 叛亂에 對한 政府의 方針에 關하야 協議를 遂하야 西班牙政府의 密使가 工業會社에 對하야 武器飛行機等의 購入을 申請한 事實에 對하야 이를許可할 與否에 關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는데 外國의 內政不干涉의 傳統的政策을 維持하기爲하야 또는 武器供與가 國際問題化할 憂慮가잇스므로 商業用 飛行機外에는 直接間接을 不問하고 西班牙에 對한武器와 軍用飛行機의 輸出을 許可치안키로 滿場一致 決定하엿다

獨逸船舶에 西班牙廻航命令

【伯林二十五日發同盟】獨逸船舶會社는 當局의要請에基하야 外國航路中에잇는 各所屬船舶에對하야 事情이許하는限 西班牙에廻航하야 歸國을希望하는 獨逸居留民을 收容하라고 言明하엿다

全國五十餘州中 廿八州叛軍手中

但、政府軍勝利는着着進行

西班牙政府戰況發表

【마드리드二十五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二十五日 國內革命騷擾의 現狀에關하야 如左히公表하엿다

西班牙全土五十餘州中 現在二十八州가 叛軍手中에 잇는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政府軍은 과다라마山脈에 强固한防禦設備를 行하는同時에 山脈背後에 强力한 防禦陣形을整備하야 叛軍의 首都進擊에萬全의 陣容을 整備하엿다 政府軍은 세고비아와 아비라의 中間에 叛軍을 모라너코 이를 潰滅할 作戰이다 그리고 政府軍은 난치리아에서 叛軍과 激戰後 同地를 [illegible]하여오다

【마드리드二十四日深更發同盟】라디오로써 叛亂鎭壓狀況에關하여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마드리드市、카탈로니아州、지브스코州等은 異狀업다

一、政府軍은 마드리드 北方과다라마嶺의 戰鬪에서 勝利를 거두고 또東南部에서도 난치리아 要塞를奪還하엿다

一、지브랄타르要塞의 空軍部隊는 마불카市에爆擊을加하야 叛軍에게大打擊을 與하엿다 세빌리아其他各地의 叛軍은 벌서收拾할수업는 狀態에陷하얏다

西班牙政府는 急迫한 事態에 對處하기 爲하야 「祖國防衛委員會」를 組織하엿다고 傳하는데 右委員會는 政府代身에 政務를 代行하는 外政府의 統制機關으로서의 性質을 帶한것이라고 보인다

蘇聯油送船 西政府參加?

【莫斯科二十五日發同盟】西班牙叛亂軍의 總帥프랑코將軍은 蘇聯油送船이 西領모록코의 軍事行動에 參加하야 政府軍을 援助하고잇다고 發表하야 이것이 獨伊兩國의 新聞에 揭載된 事件에關하야 蘇聯政府當局은 如斯한 行動은 絶對로업다 소운일은 徹頭徹尾 反蘇政府의 데마라고 排擊하엿다

青年팟시스트隊 政府軍攻擊開始

【마드리드廿五日發同盟】산·세바스티안에서 叛亂軍青年팟시스트隊는 突然憲兵隊로 假裝하고 中央의카지노前庭에 機關銃을걸고 政府軍에對하야 突然射擊하야 政府軍은 白旗를擧하고 投降의意를 示하엿다

政府軍세市奪回

【巴里二十六日發同盟】政府軍은 一次叛軍手中에 陷落된 산·세바스티안市를 二十四日 奪回하엿는데 國境方面의 避難者談에依하면 市街戰은 猛烈을極하야 死者約三十名을 내엇다고한다 산·드·루즈에 達한 報道에 依한다

마드리드市 食糧飢饉說?

【巴里二十五日發同盟】叛亂軍의 重圍中에 陷한 西班牙首都마드리드市의 現狀에對하야 巴里에 到達한 各種報告를 綜合하면 糧道를 斷絶당한 마드리드市는 食糧飢饉에 陷하야 向後二十四時間以上 支持할 食糧이 남지못할 程度로 市民의 不安은 一層增大되고 給水도 이미 杜絶되고 特히 石油缺乏으로 市中自動車는 影子를 보기 어렵다

獨逸政府率先 伊에併合承認

伊政府콤뮤니케發表

【羅馬二十五日發同盟】羅馬駐箚獨逸大使핫셀氏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外務省에 차노外相을 訪問하고 獨逸政府는 伊太利政府의 에티오피아併合을 承認하고 이에同時에 아디스아베바公使館을 廢止하고 이에 代할 領事館을 設定하겟다고 通告하엿다 伊太利外務省은 獨逸政府의 通告를 밧자 곳 左의 콤뮤니케를 公表하엿다

獨逸大使 핫셀氏는 二十五日 차노外相에게 對하야 獨逸은 伊太利의 에티오피아併合을 承認한다는 旨를 正式通告하엿다 이에 對하야 차노外相은 獨逸政府의 好意에 深甚한 謝意를 表하엿다

羅馬市民은 狂喜亂舞하며 베네치아宮前의 廣場에 蝟集하야 「무솔리니萬歲」를 連呼하엿다

獨墺協定에關聯 獨伊間秘密協議

【羅馬二十五日發同盟】獨墺政府가 伊太利의 에티오피아併合을 正式承認한 結果 이에 依하야 獨墺協定成立으로 「獨伊兩國間에 秘密協定이 締結되어 히틀러總統은 伊太利의 에티오피아併合承認을 容認하얏다고 傳한 風說은 事實인것이 證明되엇다 對伊制裁撤回決定과 同時에 「武力에依한 侵略의 結果不承認」을 聲明한 過般의 聯盟理事會의 決議는 獨墺의 單獨承認으로 깨어젓거니와 英佛兩國이 이에對하야 如何한 態度를 取할는지 注目되고잇다

叛亂軍爆彈二個 米國商船에投下

叛軍總帥에嚴重抗議

【워싱톤二十四日發同盟】米國商船엑스미아號가 말라가港에서 지브랄타르港에 赴하는 途中 叛亂軍의 飛行機三臺는 同船附近百米以內에 爆彈二個를 投下하엿다 탄지에르駐箚米國總領事는 廿四日 叛亂軍總司令프랑코將軍에게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엿다

英議會事態重視

【倫敦二十五日發同盟】西班牙의 叛亂에依한 英國人의 安否에關해서는 英國朝野가 모다 非常히 念慮中인데 二十五日 當地에 達한情報에 依하면 사오치니오在留 英國女子 兒童全部는 말라가港으로부터 巡洋艦 도레스아스號에 搭乘하야 二十五日歸英의 途에 올랏다 그리고 英國議會는 西班牙의 事態를 重視하고 下院의 質問通告者는 數名에 達하엿는데 在西大使館으로부터 아직 何等報告에 接치아니하야 英國外相은 情報蒐集에 苦慮中이다

首都運命을賭할 大戰鬪展開

【바야돌리드廿六日發同盟】바라라야 嶺을끼고 對峙하고잇던 叛亂北軍主力과 政府軍은 二十六日 未明부터 드디어 首都마드리드의 運命을賭한 大戰鬪를開始하게되엇다 戰鬪는 먼저 叛亂軍前進地로모세라嶺의 政府軍攻擊을 開始되어 바라라야、네바우에라다의 各嶺으로부터 波及하야 全嶺에亘하야 活潑한戰鬪를行하고잇는데 叛軍은아직主力部隊가 前線에到着지아니한 때문에 數時間의激戰에도 不拘하고 政府軍이 아직 要衝各高地를 扼하고 叛軍의 進出을 阻止하고잇다 叛軍은 바야돌리드에 司令部를 置하고 主力部隊의 前線到着을 기다려 强攻擊에옴겨 萬一 마드리드 奪取가 失敗에終하더라도 그周圍를 包圍하야 糧道를 斷絶하고 水源地를마을成算이 充分히잇다고 豪語하고잇다

아폰소廢帝近況

【프라그二十五日發同盟】西班牙內亂勃發以來 俄然二動期에 世界視聽이 集中된 西班牙皇帝알폰소十三世는 케니히스발트의 멧테르니치侯의 居城에 悠悠히 致養中인데 西班牙國內의 風雲急迫에伴하야 連日各地로의 電話로 應接에 奔忙中이다 廢帝는 故國서 召喚의 飛電이잇스면 곳本國에가 돌보든王朝再建의 野望에 熱烈한 侍從長에게 비아나侯는 廢帝의 詔令을받고 어데인가 發程하엿다고 傳한다 廢帝의 最近健康狀態는 아주 不充分하야 一九三四年 自動車事故當時의 負傷은 快癒치못하고 現在도 醫師의 治療를받고잇는狀態이다

政府側海軍 猛砲擊開始

아要塞及모록코沿岸

【지브랄타르二十五日發同盟】지브랄타르港外에 集結한 西班牙政府의 海軍은 二十五日에 至하야 俄然알레시라스要塞及 叛亂軍의 手中에잇는 西班牙領모록코沿岸地帶에 向하야 猛烈한 砲擊을 開始하야 砲聲은 殷殷히 天地를 흔드는 壯觀을 呈하엿다 右砲擊은 모록코의 叛亂軍部隊의 西班牙本土增援을 中止할 目的에서 나온것인데 알레시라스要塞를 占據하고잇는 叛軍은 비와가티 쏟아지는 砲彈의 威力을 압두고 死者가 續出하야 말라가方面에向하야 退却을 開始하엿다 모록코海岸叛亂軍의 本據수―다로 向한 政府軍 軍艦파이네號 九千噸巡洋艦及 潛水艦三隻도 二十五日早朝 叛軍에對하야 砲擊을 開始하야 約五百發의 砲彈을 내리쏘앗다 叛軍이쏜 一彈은 파이네號에命中하야 同艦을 損傷하얏다 또 마르세라에서는 政府軍飛行機一臺는 叛軍에게 射落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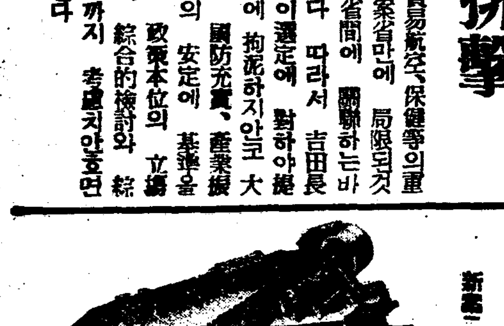
【지브랄타르二十五日發同盟】西班牙政府空軍은 二十五日모록코의 叛軍本據에 爆擊을 加하야 多大의 損害를與하엿다고傳하며 一方 알레시라스에서 叛軍은 政府의飛行機에、高射砲로 猛射하야 一機를 射落시켯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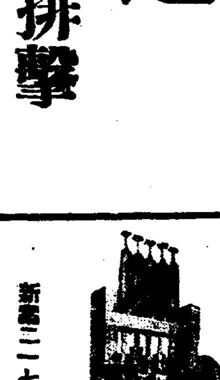
國策銓衡方針 政策本位로邁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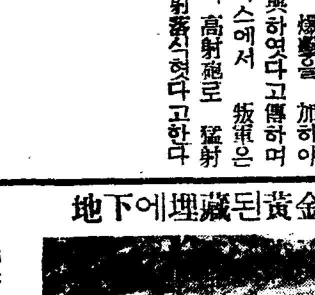
行政官廳中心主義排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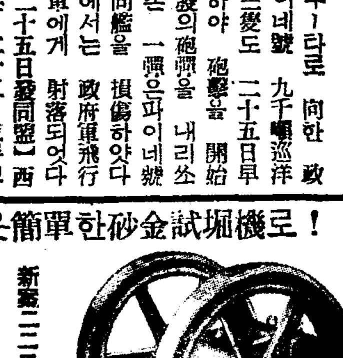
【東京電話同盟】三十四件에達하는 各省國策案은 目下吉田調査局長官의 手에서 審議中인데 今週中에 審議를 終了하고 三長官會議를 開하야 首相과 協議하게될터인데 同時에 吉田長官으로서는 調査局獨自의 立場에서 各省立場에 拘泥하지안코 國策의 綜合性을 尊重하는 意味에서 行政官廳中心主義에 依하지안코 只가 政策中心主義의 銓考方針을 取하야 閣議에서 決定할 意見書를 提出하기로되엇다 卽各省으로부터 提出된 案은 事前 自省을 中心으로 立案되고 그結果 同一範疇에 屬하는 政策이 各省間에 二重으로 되어잇는것 가튼例도 不少하야 그間에 統一性을 缺如하고잇는 政策의 各省割據를 現出하고잇는 現狀으로 그 가장 顯著한 例는 貿易國策에 잇서서 商工省의 貿易局中心主義와 外務省通商局中心主義가 잇고 또航空國策에 關해서도 陸海軍과 遞信三省에서 三樣의 見解를 가지고잇다 그래서 이外에 提案이 重複지안터라도 電力、貿易航空、保健等의 重要政策은 提案省만에 局限된것이 아니오 各省間에 關聯하는바 자못 廣大하다 따라서 吉田長官으로서는 이選定에 對하야 提出者의 立場에 拘泥하지안코 大局的見地에서 國防充實、產業振興、國民生活의 安定에 基準을 두고 못까지 政策本位의 立場에서 國策의 綜合的檢討와 綜合的實施方法까지 考慮치안흐면 안되리라고한다

地下에埋藏된黃金은簡單한砂金試堀機로!


新案二一七二〇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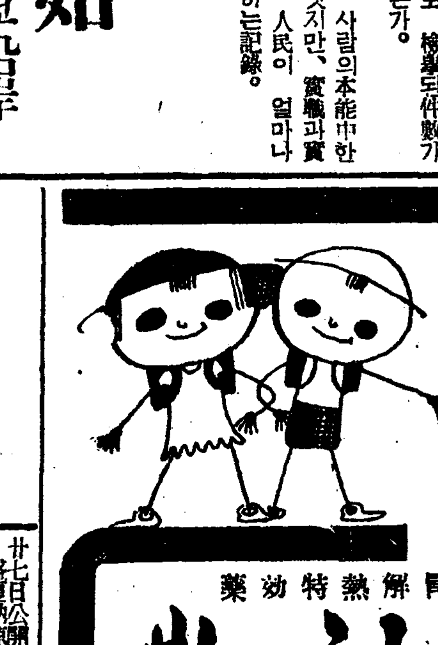

特許一二二〇二九號




新案二三三二七號

京城府中林町 電本局 三六八 三四四四

朝鮮鐵工所


손에손을잡고원기잇게놉시다!
感氣가들면實母散을服用코速히고칩시다

感冒解熱特効藥 實効散

東京市神田區旭町 本舖 天佑堂

NO.141

아모리기름을실혀하시는분이라도
산뜻하고 調子조흔것은 꼭마음에맛게되는

ランラン洋裝香油

廿三日부터의 降雨 各地에 雨量充足

二三日間은 晴、曇、雨、不規則

【仁川支局電話】仁川測候所發表 오래동안의 한발로말미아마 한동안은 매우어섬이 소연하엿스나 지난 이십삼일부터 시작되비는 절조선각지에 골고로 내리엿는데 이제지난이십삼일부터 이십륙일 오전여섯시까지의 각지우량을보면 다음과갓다

測候所잇는곳

▲新義州四五미리 ▲中江鎭三〇미리 ▲平壤二〇미리 ▲仁川五〇미리 ▲京城一〇三미리 ▲全州一八미리 ▲木浦一미리 ▲淸州二미리 ▲城津二一미리 ▲元山五一미리 ▲江陵八미리 ▲秋風嶺七미리 ▲大邱二一미리 ▲釜山二三미리 ▲蔚山二미리 ▲利川一〇〇미리 ▲雄基一七미리

測候所업는곳

▲伊川三三미리 ▲德原三六미리 ▲廣州三二미리 ▲加平九四미리 ▲平昌五二미리 ▲華川四九미리 長湍五一미리 ▲江華三〇미리 ▲湍川八四미리 ▲義川四七미리 ▲新院三三미리 ▲雲山三六미리 ▲瑞川一〇七미리 ▲水原七三미리 ▲華遠九一미리 ▲成川四五미리 ▲漢井里三六미리 ▲北院五六미리 ▲新溪七五미리

그런데 조선의 작금의 과잉은 극히 불규측한것이어서 이십칠일까지는 이대로 청、담、우가 고르지못한 현상이 계속되리라 하며 이번 비는 대체에잇서서 각처에 균일한 모양이라한다.

線路防水警戒 今年에最初로

련일계속하는 폭우에 각처에서는 벌서부터 물소동이잇는데 철도국에서는 해마다잇는 수해를 돌아보아 선로경계를 엄중히 하고저 각지의상황을 수집중인데 이십륙일아침까지의 경성일대의우량은 륙십이"미리"를 보히고 아즉도 비가계속할듯하야 경부、경의、경원、경인、각선의 일부에는 상당히경계를하여야할 상태에잇음으로 이십륙일오전열한시 경성철도사무소관내현업에대하야 물을경계하라는 경보를발송하야 올여름에들어서최초의경계진을폇다

咸興地方도解渴

【咸興支局電話】함흥지방에는지난이십일부터 비가내리기 시작은하엿스나 이십오일아침까지에 겨우삼십일"미리"밧게내리지안하서 일반농가에서는 이번에도비가 흡족히오지안흘가하야 사뭇 염려하든바 이십오일저녁 아홉시반부터 비가 소리를치며 내리기시작하더니 이십륙일 아침열시까지 사십일"미리"을내리여 이미모를내인논과 밧곡식은 충분히해갈되게되엿다

長淵에도甘雨

【長淵支局特電】날마다 기대리고기대리든비는 지난이십사일부터 날이호리고 가랑비가 내리기시작하더니 지난이십오일밤부터는 큰비로변하야 지금까지도 비는계속중이다 이와가티 오래간만에 비가오기때문에, 그동안 모진 가믐에 거친 말라비트러지든 모와 긔타 농작물은 갑작이생긴가물에 마저 공단놀까에는 벼가간기뻘이 넘처서 벌라노흔것처럼 윤택이돌고 농촌 서금변은 풍년이들겟다고 떠들고잇다

伏車川물도氾濫 今朝까지四十一"미리" 昌信町에十三戶浸水

경성시내에 사흘동안 똑똑이계속하야 내리는비로말미아마 곳곳에 그피해가 나타나고잇다 시외뚝도(纛島)한강상류는 이십륙일오전열시까지에 약두자가량밧게 증수되지안햇스나 뚝도 전관교(箭串橋)부근에는 약두『메돌』가량이나 증수되엿다 그리고 시내창신정(昌信町)을흘러가는 복차천(伏車川)은 이십륙일새벽에 범람되여 창신정륙십오번지 흥인배재학교(興仁培材學校)신축장의 돌담이 문허저서 교통이 두절되엿스며 그부근일대에는 약십삼호가량이 침수되엿는데 아직가태서는 대단한정도가아니고 따라서 인축의 피해도 전연업다한다

石築이문허저 隣家도崩壞 今日새벽、新孔德町에서

이십륙일새벽부터 물퍼붓듯이 쏘다지는 폭우에 아침여덟시쯤하야 부내신공덕정(新孔德町)일번지론부터 그동아산(山)륙번지까지 사이에잇으는 경긔도농무과(農務課)안에잇는 주택조합(住宅組合)소유 석축이두곳이나 문허저서 그석축미테잇는 신공덕정일번지의이십삼호 한동희(韓東熙)씨의집은 약반가량이 허무러젓다 다행히인축의사상은 업섯스나 남은석축도마저문허질 염려가잇서 소관 룡산경찰서에서는 그미테사는주민을 우선피난시키는한편 소유자를 불러허무러지려는 석축에응급조처를 하라고 엄명하엿는데 이석축은 작년여름에도 문허진일이잇서 경고한일까지잇섯슴으로 이번에는단연 개축을 명령할예정이라고한다

◇雨後淸風……(今日麻浦에서)

石築이문허진現場(新孔德町에서)

仁川에覆面强盜

【仁川支局電話】이십륙일 새벽네시경에 인천부도산정(桃山町)이십번지 백성칠(白星七)(五〇)의 집 건는방에 나이이십칠팔세되여보이는 복면한 청년한명이 침입하야 그곳에잇든 식칼로 건는방에 세방사는 정수철(鄭壽喆)(三五)이가 취침중을깨워가지고 돈을 내라고 위협하엿다 이소리를듯고 마루에자고잇든 전긔백성칠의딸 복순(福順)(一七)이가잠을깨여 도적이야 소리를지르자 전긔복면한 청년은 손에가진 식칼로 그처녀를 찌르랴하엿스나 그때에는 벌서 그이웃집사람들도잠이깨여서 몰려왓슴으로 그들을라서 복면한강도는 바람과가티 어대로인지 잠적해 버렷다한다

磨石公普全焼

이십륙일 오후두시 이십분에 경긔도양주군화도면(楊州郡和道面)마석공립보통학교(磨石公普校)직원실에서 불이입어나 동네 시삼십분까지에 학교를전소시키고 겨우진화되엿다 원인과손해는 방금조사중이다

南鎖北開에依하야 漫然渡航一層嚴禁

明年엔相當한豫算을要求

남조선일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현해탄(玄海灘)을 건너가는 로동자와 농민의수는 년년늘어가고잇서 총독부와 내무성(內務省)당국에서는 이를 어떠케해서던지 억압하려고하나 원체조선에서 살길이힘들어 직업을차저서가는 그들이라 아무리막으려해도 그대로수가늘어가고 잇서서 내무성당국에서는 일본내지의 로동시장이 이때문에 더실업자를 내이게되여 기타여러가지로 문제를 만히 내이게한다고 일종열심히 총독부당국에 그제지를 청하여오는터로 총독부당국에서도 변대로 각지경찰을 동하야 도항자의 방문을 엄중히하며 될수잇는대로 도항자를 제지케하엿는데 금후조선의 만주이민문제와 관련하야 명년부터는 종래 엄중히하려는 총독부당국에서 편안되고 잇는모양이다 즉명년은 만선척식회사(滿鮮拓殖會社)의손으로 이민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케되어 이민은대부분 남조선에서 선발케될터임으로 남조선의 도항자는좀더철저히 단속케하자는것인 모양으로 이때문에 총독부에서는 상당한 예산도 계상하야 심한것은 부산이나 기타항구에서떠돌아다니며 도항의 기회를 엿보고잇는것은 고향에 돌려보내기로하며 이미 대판기타지방에 가잇는 조선인중에서도 일정한 직업을 못가지고잇는 사람들은 될수잇는대로 조선에 돌아오도록까지 힘쓰려는모양이어서 소위 만연도항자의제지는 명년부터일층 엄중하여질모양이다

薄俸과前程을悲觀 京紡職工이自殺 京仁線鐵路에跳入慘死

【永登浦】이십오일오후열시삼십오분경 영등포기점 륙백오십미돌가량되는데서 인천발경성행 사백사십이렬차가 동지점에 달할때에 경성방직공장(京城紡織工場)기계수선부조장 시내신길정(新吉町)삼백삼십번지 최경도(崔慶道)(三一)의 장남 최유동(崔濡洞)(三一)이가뛰어드러 몸뚱이가 두동강에 잘녀저서 무참한자살을 하엿는데 그는사변전에 그공장에드러가서 하로가리 열심으로 일을하여오는터로 지금에는 일급겨우 칠십오전밧게 못밧는데다가 여덟식구를 부양하여 나가려니 생활에 여간한 곤난이 아닐뿐아니라 장래에 희망이 조곰도업슴을 극도로비관하고 그와가티 세상을 등진것이라고하는데 보는사람 듯는사람들로하야금 동정의눈물을 금치못하게하다하며 동회사에서도 딱한광경을 당한 유족에게 상당한조의금을 지출하리라고한다

애독 ネオ・スピロヂン 京城南大門通一ノ三 大同製藥社

大寶炭鑛筆頭로 各炭鑛坑夫動搖

物價暴騰으로給料引上을要求 會社態度如何론盟罷氣勢

【平壤】계속하는 지리한 한발로인하여 평남전폭에서는 흉작을 상상하고 갈수록 인심이흉흉한것만은 사실이지만은 더욱이 곡물(穀物)가격의 긔록적폭등과 로제반물가의 고등으로 로동자와 월급쟁이 세민층은 생활상 큰위협을밧고잇는터이데 대동서관내에잇는 대보탄광(大寶炭鑛)항부삼백여명은 현재에 밧고잇는 일급(日給)륙십전을가지고는 도저히 멧가족의 생활을 유지할수 업다하여 생활안정이 되도록 급료를 올리라고 조선무연탄 회사당국에 요구햇스나 회사측으로서는 하등의대답도업서 흥분한 항부들은 동요를 이르켯다 금후회사측태도여하에따라 동맹파업이라도 단행할위구일발의 현상이므로 소관대동서에서는 엄중한감시를 가하고잇고 평남도내의 전반탄항에서도 파가튼 요구를 항부측에서 제출하고잇는만큼 금후의 전항부대 회사사이에 긴급한 타협안이 잇서야될것으로 추측되여 그추이는퍽주목되고잇다

京電의不公平으로 敦岩町民도蹶起

電車賃金均衡을要求

지난이십일에 경성전긔회사에서 발표한전차료금을 도심지대(都心地帶)에만제한하야 오전균일제도로 개정한다는데 대하야는 그자세한내용과 및돈암정(敦岩町)마포선(麻浦線)주민에게는 다른곳에 비교하야 불공평하게 되엿다는점등 루보한바어니와이십륙일 드듸여 돈암정일대주민들이 그불평의봉화를 들게되엿다 즉 돈암정주민 일천사백호 성북정(城北町)구백호 정릉리(貞陵里)사백호 미아리(彌阿里)삼백호의 약일만오천여명 주민들은 특히 시내중앙과밀접한 생활관계를맺고잇서 그래왕이 빈번한데 이번개정된 제도에따르면 그거리가 도심지대까지 청량리선이나마포선이나 또는앵구(櫻丘)선에비교하야 가차움에도 불구하고 전긔각선은오전으로 내리고 돈암선만 그냥팔전구역으로 되여잇는것은 주민일동과및 이지대의장래발전을 전연무시한것이라고하야 이십륙일오전에 돈암정 부근주민 유지수십명이모혀서 그대책을 강구한결과 그대표자수명을 뽑아서경전당국에진정키로 하엿다한다

驚馬傷人

시내청엽정(靑葉町)일정목일백구십오번지에사는 김덕경(金德景)(三二)이가 끌고가든마차가 재목을만재하고 본정(本町)이정목조선관(朝鮮館)아페이르럿슬즈음에 그짐마차의 말이무엇에놀랏든지 다러나기 시작하야 일본내지인로파한사람과 어린애두명이 다처서 방금본정하야(河野)병원에서 치료중인데 피해자의 주소성명과 부상정도는방금조사중이다

天氣予報

概況 七四八미리의 低氣壓은北滿에、七五〇미리의 低氣壓은 天津 北部에잇서서 가리北東에 進行中이고 七六四미리의高氣壓은 日本南海上에서 關西地方을덥지나 半島의西部에突出하여잇다 滿洲는晴曇不定、關東과南朝鮮은曇 中部地方은雨 琉球諸島는晴 日本本州는晴曇不定 明日도天氣가나쁘다

豫報 비가왓다 머젓다한다

京畿道全區同

昨日最高	二五、八
昨日最低	二一、一
今朝最低	二三、一
今日正午	二六、七

運動前哨

올림픽招致 運動을開始

【伯林二十五日發同盟】伯林에滯在中인 副島道正伯과 嘉納五郞의兩올림픽委員은 平沼代表團長等關係幹部와 함께 二十五日 大使館에서 武者大使를 訪問하고 招致問題에 對한 情報를交換하엿는데 그結果四國의 情勢가 漸次好轉으로 各方面으로부터 各國別的으로 運動하는 事態를 顯化할 必要가 잇슴으로 라트르博士와 『가-렌드』氏等과의 懇談의結果 招致運動을 委員에게一任하야 委員會決定五日前부터 運動開始를 斷行하기로되엿다

데빗쉬컵 濠洲지라운드 英國二勝

【윔블던二十五日發同盟】데빗쉬컵『챌린지·라운드』英國對濠洲戰의第一日은 二十五日 윔블던에서 單式二試合을 行한바 다음의스코어로 英國이二勝하엿다

오스틴(英) 4—6 6—3 6—1 6—1 크로포드(濠)

페리(英) 6—1 4—6 7—5 6—2 퀴스트(濠)

佛國에도派遣費難

【巴里廿四日發同盟】佛國올림픽委員會에서는 二百五十名의選手團을 伯林에派遣키로되여 政府는 其派遣費로서 百萬法을下付한다는 旨를 發表하야 資金難으로 苦痛밧는 各團에게 莫大한 期待되여잇든바 最近에 이르러 突然히 政府當局은 過日 外務省當局으로부터 役員選手團派遣費로 三十萬法을 下附한때 곳처버렷다

그러나 大會는 벌서 멧날남지 안어 느저도廿九日에는 伯林에到着할 日程까지 作成하고잇는데 이問題에對하야 佛國올림픽委員會에서는 緊急理事會를 召集하야 對策을 講究中이다

올림픽開會式當日 獨逸取引所一齊休止

【伯林發同盟】待望의聖戰 伯林올림픽大會는 어느듯 目睫間으로 迫頭하야 十數萬의 觀衆을 收容할수잇는 宏大한『스타디옴』에서열리는開會式當日은 文字그대로의 空前의 一大偉觀을 이룰것이 벌서부터豫想되는데 이 記念할 八月一日에는 獨逸國內의 株式取引所는 一齊히 休止하야 擧國的으로 올림픽祭典을 祝福하기로 되엿다

京師軍柔道惜敗

【福岡電話】福岡에서 열린西日本柔道選手權大會에出場한 京城師範은 準決勝에 修猷館中學과 對戰하야 惜敗하엿다

仁川運動場開場에 各種競技도擧行

【仁川】公設運動場의 開場式은 府民待望裡에 廿六日午前九時부터 盛大하게擧行되여 軟式野球 庭球 陸上競技와 府內中初等學校生의『마스게임』等의 各種競技會가잇스며 二十七日에는 府教靑會主催로 公設運動場竣工을機會로 午後二時부터 女子中等校陸上競技會를 열기로되엿다 한다

中等野球豫選順延

大朝主催의 第廿二回 甲子園中等學校野球大會 朝鮮豫選中部第一次戰의 準決勝戰—善隣商業對京城師範、仁川商業對京城商業의 對戰은 二十六日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 豫定이든바 이날도 亦是 降雨로因하야 二十七日로 順延하엿다한다.

對黃州蹴球戰 3—1崇商勝捷

【黃州】平壤崇仁商業學校蹴球遠征團은 二十四日午前 黃海道黃州邑에 到着하야 同日午後三時부터 同地普通學校球場에서 第一次로 黃州蹴球團과 게임을行한바 接戰끄테 三對一로 崇商軍快勝하엿다 (當日主審朱孝星氏)

崇商 3 (2—1, 1—0) 1 黃州

黃海蹴球리그 八月八日부터開幕

【安岳】安岳蹴球聯盟主催의 第六回黃海蹴球聯盟戰은 例年과가티 八月八、九、十의三日間 安岳公設運動場에서 열가로되바 諸般規定은다음과갓다

▲申込期限=七月末日까지 安岳蹴球團事務所로 申込할것

▲申込規定=加盟團體에 限함(但新入加盟團體는 加盟金十圓을 添付하야 申込할것)

▲選手親睦會=七日午後六時에主催側에서擧行함

明日의運動

▲野球=甲子園中等野球 中部豫選準決勝…善隣對京師(午後一時) 仁商對京商(午後四時)京城球場(觀覽無料)

▲排球=廣島高女 招聘戰第二日 對龍谷女高(午前十時)對第二高女(午後一時) 對黃海道局(午後三時)龍山鐵道コート(觀覽無料)

斷然値下げ斷行
特別サビス付大賣出し
A 三圓以上ノ品一個買上毎ニ眼鏡(老眼・近眼・遠眼・色眼鏡等御希望通リ進呈)一個宛進呈致シマス!
B 一度ニ六個以上御註文ノ際ハ特別五分引一割以上ノ時ハ一割引ニ奉仕
★セイコーシヤの誇り
(1)市價三分ノ一ヨリ安イ廉價デ商モコンナ薬勝シイサービス付賣出ハ絶對ニ他ノ追從ヲ許サズ
(2)品質優良大衆本位ヲモツトートシ致シ全品十五ケ年保證付
(3)此廉價ニモ拘ラズ多數註文ノ際ハ割引ノ特典ガアル事
●註文は必ず三割以上の内金を要し送料は代引註文の方は四十錢御負擔を願ひ升
クローム側懷中 (16型) (11型) (10型) クローム側腕卷
十八金HK側腕卷時計 十八金HK懷中時計 (16型) (8型) (9型) クローム側懷中
●送金は振替・又は小爲替にて願ひます
Ⓢセイコーシヤ 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十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두통과치통에 진노ー

爽快하게病症을除去하는 腹痛タミン
곳낫는다! 고대먹은약이 이러지기까지는기다려라!
頭痛에는頭痛用『タミン』을!
藥學博士 大谷文協氏 創製
廿錢부터
大阪北濱・龜田藥榮株式會社 (473)

世界的腫症名藥 韓氏膏藥
到處藥房販賣
恩給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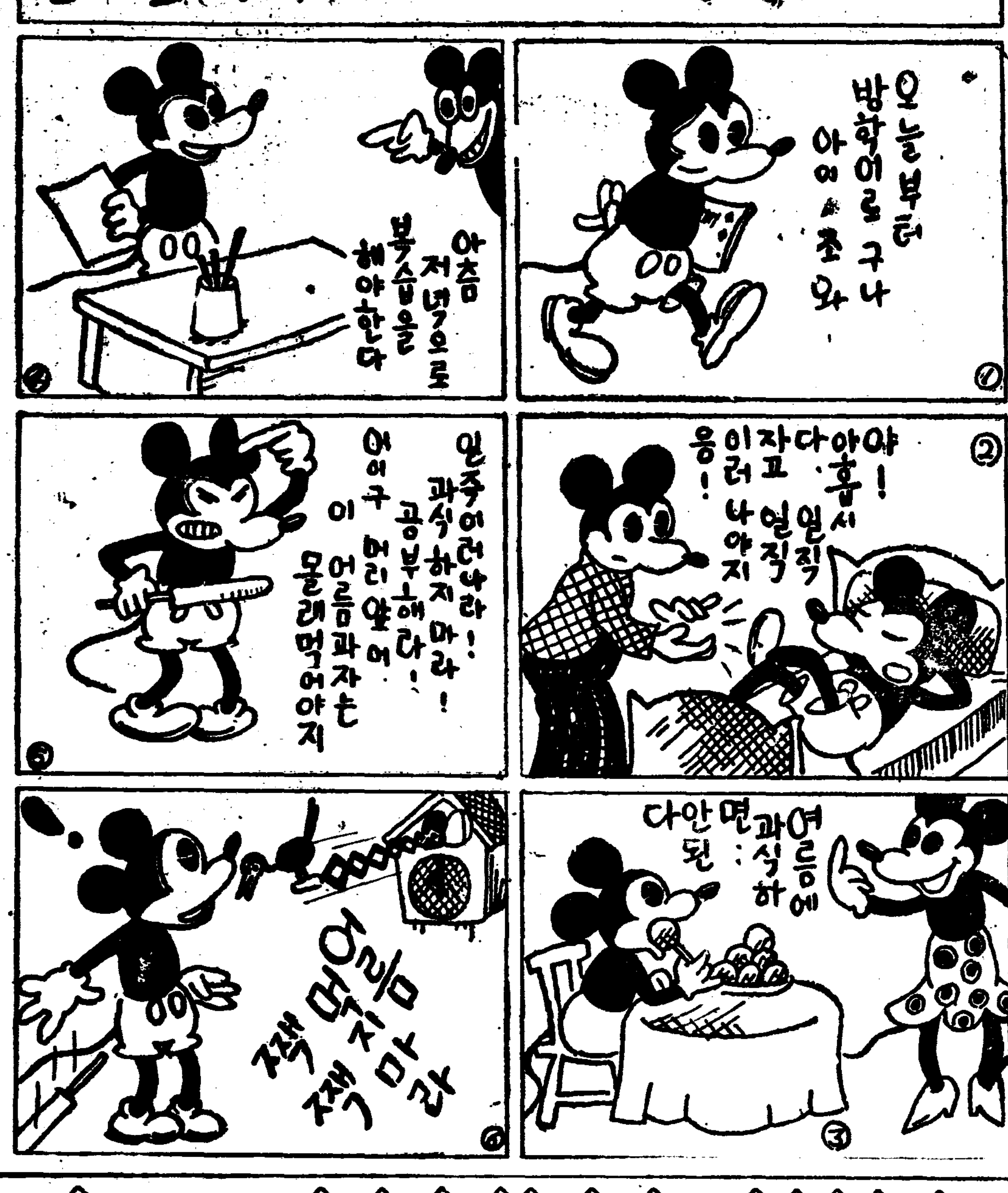
牛乳石鹸 中元에最適
여름!
GYUNYU No.366

오시요! 보시요! 果然
補精助陽에天惠的元素인
樺太廳官營捕獲
同廳水産物檢査所證明付
眞品海狗腎展示即賣會
時日 自七月二十五日 至七月二十七日 每日 午前九時부터 午後五時까지
會場 京城府民館
釜山大洋貿易社鮮滿宣傳部 釜山府草梁町三三五
朝鮮日報社釜山支局 長途電話釜山二八九七番

明治コナミルク(赤罐)
母乳代用 加糖粉乳
半폰드入・五十錢
十萬의산애育例에依하야實證되고잇는이品質!
明治製菓株式會社

미키의 여름방학

金湘旭



소년조선일보

수에빠진친구를 구해내는묘방

최춘숙

지금으로부터 근백년전 독일에 비스마아크라고 하는재상이잇섯는데 세계대전이잇기전 독일을 그와가티 강하고 또 성하게맨들어노흔것은 태반이나 그재상의 공로라고들 떠들도록 유명한이랍니다。그런데 그가 어렷슬때 자긔의 친구하나와 총을메고 사냥을 나가지안핫겟니? 그래서 새도날리고 김성도튀기고 하면서 여긔저긔 좃차다니지를 안켓니? 그런데 그친구가 사냥하는 재미에 땅아래를살피지 안코날뛰다가 고만수에게가서 빠젓고나. 수라는것은 진흙이나모래가 뭉킈뭉킈해서 드듸기가 무섭게빠저들어가고 나오려고할수록 더들어가는것이란말야. 그친구가 거의 넙적다리까지나 땅아래 무더노코서는 오도가도못하고고기가만힐것아니냐? 그저 비스마만처다보면서작구살려달라고빌지만은그를구원하려들어갓다가는 자긔조차 살지못할뿐이자 무슨수가 잇겟니?

『내가 자네를 살리려다가는나까지 죽을것이요 그러타고 목숨이 부러잇는 자네를 그대로 두고갈수도 업는일인즉 할수업시내손으로 자네를 죽이는수밧게업지』

비스마은 정색을하고 이러케말을하얏지만은

『여보게 농담을랑 이다음에하고 날좀 살려주게』

그친구는 그래도 농담으로들리것다。

『이 놈아、농담은 누가 농담을 한단말이냐? 자、총이나바떠란』

비스마의말이 뭇나자 총소리가 탕 하는바람에

『아이구먼이 나죽는다』

그친구는 벼락소리를 지르면서 불지불식중 뛰어나왓겟다.

『영、고약한놈 가트니 네가틀것을 친구로 알다니』

하고 나중에그친구가 노긔를띄워대드니까

『이사람아 그러지 안코는 자네를 살려줄길이 업스니 어찌나?』

하고 비스마은 껄껄웃더란다。그런때 그만큼 의사를내는 비스마이라 그다음날 정치나 외교나 모든 방면에잇서서 아조 수완이 놀라왓단말이다。

해외소식

『유ー고슬라비아』의 열두살된어린황제

저『유ー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잇습니다。그나라 님검님 『알렉산더ー』일세폐하께서 재작년 시월구일 불란서의 『말세이유』라는 항구에서 암살을당하시매 아드님『피ー타ー』이세께서 즉위하신것은 여러분도 아시겟지요。그때에 겨우 열한살박게되지안햇섯스니 지금은 열두살이십니다。지금『베오그라ー드』커레ー지라는 학교에서 사변생박게 안되시나 재주가 엇지나 놀나우신지지난학긔시험에도 누구나 가르처드리거나 하지도안코그야말로 실력으로해서훌륭하게입격되섯다는것이 학교당국으로부터 『마리』황태후폐하께 보고되엿습니다 폐하께서는 그결과보통일주일에 용돈으로 약십원가량바게 쓰시지못하든것을 훨씬에오십원식 쓰시게 되여서 아주기뻐하신답니다。그런데 이전에십원식바드실때는 손소 수공품가튼것을 만드서서 궁중에 잇는 사람들에게 팔어가지고 그돈으로 용돈 모자라는것을 보충해쓰셧스나 지금은 오십원식 바드시니까 그럴필요가 업습으로 인제는 공부만 꽉 열심으로하시겟다고하신답니다。그런데 이어린황제께서는 엇지나 영매하시던지 얼마전에 궁중교사를붓드러가지고서는

『현명이란 무엇이냐』고 물섯드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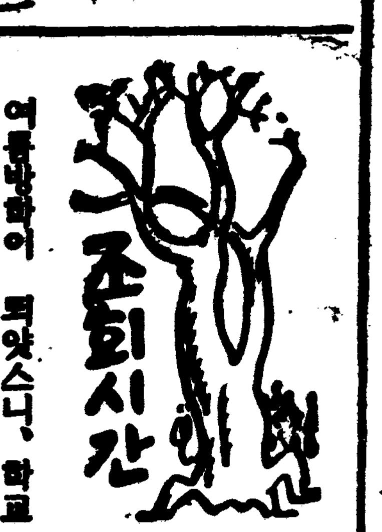
『현명이라는것은 인민이 모다 미처서 날뛰는것입니다』하고 대답하니까 다시뭇기를

『서반아의 님검이 쫏기여난것은 현명때문이지요 인민들이님검을 쫏차내는냐』하시기에 다시 대답하기를

『지금 말씀한바와가티 인민들이 모다 미친때문입니다』고햇드랍니다。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모래도 거짓말을하는것갓다、님검이 나뿐일을하지안코면 왜쫏겨날까닭이잇느냐』하여서 교사를 놀나게하섯답니다

조회시간



여름방학이 되얏스니、학교에서는 조회시간이 업습니다。그러나 성문은 방학이업습으로 조회시간을 그대로 직히게 됨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참고될이야기 두가지를 말하겟습니다。

하나는 일전에 몹시더울든날 한강에서 여러분의동무 어린생도두명이 목욕을 하다가 잘못하야 빠저죽은일이 잇습니다。

여름에는 물가에 나가서 목욕도하고 헤엄치는것도 배우는것이 매우 좃습니다。그러나 어른파가티가지안코 어린사람끼리만가는것은 대단히 위태하니 조심하시오。

또하나는 대판이란곳에서 생긴일인데 여러분이다니는 보통학교와가튼 소학교의 심부름하는 소년이 학교일을보며 틈틈이 공부를하야 소학교선생이되는 시험에급제를 하엿다합니다。속담에 억개넘어로 글을배운다는말도잇거니와、이런일을 보면 여러분은 더욱 열심으로 공부를하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曆☆

七月廿七日(月) 舊乙未六月小(初九日) 庚戌·金·心·平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라디오

二十六日(日曜)

◇午後六時三〇分 童話劇『새의나라』一景 ー配役ー 새끼꾀꼬리……金貞淑 어미꾀꼬리……朴東涉 따오기……李香順 산비둘기……尹相先 산새……金貞姬 부형이……金重培 百合어린이會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金包光

指揮 金順楨

◇同八時 流行歌(레코ー드演奏)

◇同八一〇(大)室內樂 四重奏 A短調 作品二九番……슈ー벨ー드作曲 第一樂章 第二樂章 第三樂章 第四樂章 第一빠이올린 코라ー드·리ー푸 第二빠이올린 島田猛 비올라 西田秀雄 첼로 吉田貞壽

◇同八三五 古談『妖物騷動』 庚秋岡

◇同九時 朴淵瀑布外 一、朴淵瀑布 二、靑春歌 三、漢江水打令 四、사발가 五、늴리리아 六、방아타령 任玉卿 細笛 姜鎭洙 短簫 金明洙

◇同一〇時〇分 鮮滿交換放送 ー釜山으로부터ー 南道歌謠 一、短歌 片時春(崔琴香) 裵雪月 二、唱劇調 春香傳中(春夏秋冬)(裵) 崔琴香 三、俗謠報念(齊唱)崔錦花 四、唱劇調 水宮歌(齊唱) 鼓手 吳德七 權鏡坡

第一放送

◇午後六時〇分 管絃樂(DKオーケストラ)

◇同八時〇分(福)俚謠博多節 秀子

◇同八時一〇分(大)室內樂 島田猛外

◇同八時三五分(東)浮世節 東家駒之助

◇同八時五五分(重)落語 柳家小山

二十七日(月曜)

◇午後零時五分(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三時一五分 常識講演 總督府社會課長 金大羽

◇同六時三〇分 童話 高在天

◇同七時 經濟解說 普專敎授 尹行重

◇同八時 趣味講演 名山大刹巡禮(一) 金日坤

◇同八時三〇分 歌謠 一、鶯士歌 二、時調 金眞紅 細笛 高載德

◇同九時 洋樂 一、歌劇『마드라』中에서……플로토ー作曲 二、主아페憂愁를울닙니다……룽뒤니作曲 三、라·팔로마……이라듸에르作曲 四、아그네여떠낫꼬나……플롯크作曲 五、安息의밤……슈ー베ー르作曲 安聖淑 피아노伴奏 金管鎬

◇同九時三〇分 긴소래외 一、긴소래 二、자진소래 三、孔明歌 四、자진배따라기 五、華容歌 李渼鳳 金玉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英語講座

◇午後二時 水泳講座 野田一雄

◇同六時(仙)이야기 山本修二

◇同六時二五分(仙)昏昏이집을차저서 仙臺郊外에서中繼 佐藤年夫 關屋五十二

◇同七時三〇分 社會事業座談會 日野春吉外

◇同八時三〇分 二曲 宮谷仙幽外

◇同八時五〇分(東) 浪花節 天中軒雲月

二十八日(火曜)

◇午後零時五分(名)管絃樂 名古屋交響樂團

◇同一時 野球試合實況 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第二次豫選 指揮 早川彌左衛門

◇同六時三〇分 하ー모니카三重奏와五重奏 一、五重奏『祝典行進曲』……川口章吾編曲 二、三重奏『西班牙月夜曲』……비제ー作曲 三、五重奏『黃昏』 李東坡作曲 四、三重奏『다뉴江의잔물결』……이봐노비치作曲 五、五重奏 米國巡邏兵……미ー참作曲 알파、하ー모니카 우디나티하ー모니카 鄭五福 울라ー브하ー모니카 金舞愛 따피른하ー모니카 任喆淳 크라리넷하ー모니카 金虎浩 베퉁빠스하ー모니카 朴起陽 指揮 崔一出

◇同七時 經濟解說 佛敎時報社 金敬注

◇同八時 趣味講演 名山大刹巡禮(二) 金日坤

◇同八時三〇分 新民謠 一、淸風明月 二、靑春의解文 三、눈물의배따라기 四、어허야나르라오 五、첫사랑

◇同八時五〇分 詠詩 一、將進酒 二、採蓮曲 細笛 高載德 張一染紅 尹趣周

◇同九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春香傳中磚石耳』 李東伯 鼓手 池龍九

◇同九時三十五分 流行歌 一、한숨 二、二八靑春 三、靑空九萬里 四、아리마을탄식 五、나그네사랑 伴奏 DK管絃團 李圭南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速成獨逸語講座 登張信一郞

◇同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高橋照文

◇午後零時五分(名)管絃樂 名古屋交響樂團

◇同一時 常識講座 村山智順

◇同六時(東)童話 關屋五十二

◇同六時二五分 靑年時間 池田林儀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天治俊一

◇同八時 流行歌 本条一郞外

◇同八時三〇分(東)吾妻 吾妻芝榮代外

◇同八時五〇分(東) 드라마 河合武雄外

化粧と香の会

只今開催中 (會場)

京城 三越

斷然場內를 壓倒하는人氣

一流단사ー의 實演

가장새로운 化粧法의 公開와

자미나는寸劇 핑장한 스텔

東洋髮의분에 白色 各一個
洋裝髮의분에 黃色 各一個
一般婦人들께 肉色

탕고도ーラン七色
얼굴빛에따라서 一層어엽부게됨
一般婦人에는…肌色
얼굴파리한분에는…白色
얼굴거츠른분에는…淺紅色
얼굴창백한분에는…黃健色
얼굴붉은분에는…早晚色
尖端的美容에는…新鮮色 明朗色
定價(各色一個) 五十錢

白粉とクリームと化粧水の綜合化粧料

タンゴドーラン

最も新らしいゝり白粉

ホルモン配合

白粉下の いらぬ

ブルースタンゴ

朝光 八月號

定價三十錢 振替京城 五八七八番

씨리아의獨立 ……金輸容

探偵小說 明眸有罪 李軒求

中篇小說 川邊風景 朴泰遠

短篇小說 薔薇 安懷南

短篇小說 술 金東里

中篇小說 저무는故鄕 姜鷺鄕

長篇小說 純情海峽 咸大勳

戲曲 姉妹 柳致眞

西南派對立과中國政情 ……李元坤

亞剌比亞의民族鬪爭 ……咸尙勳

내가잇지못하는 江·山

金剛山……李軒求 鷄龍山과大同江……李石薰 揚子江과金剛山……李明雄 金剛山……高義東 石橋……方鐘鉉 成鏡嶺……孫晋泰 白頭山……金尙鎔 帝釋山……金基鎬 海蘭江……李軒求 鴨江……姜在鎬 妙香山……李一 白華山……安在鴻 라인江……李克魯 洛東江……宋錫夏 大同江……金顯澤 金剛山과揚子江……安浩相 漢拏山과金剛山……李德鳳 錦津江……徐元出

發賣中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世界올림픽마라손豫想記 ……周王山

막심·고ー리키ー를弔함 ……咸大勳

隨想

一年남아기른花草……金永義
어비러떡라偶草八種……卞榮晩
老人亭……李秉岐
消夏漫筆……翠雲生
文藝雜感……李箕永

悲戀의妓生눈물의手記 ……崔玉姬

民俗과野談

◇社堂牌……白花郎
◇鄭古玉……申鼎言
◇徐、吉、吳、卜、權氏외姓氏로ー맨스……秦春山人
◇節度便李澄玉……史外史人

李忠武公海戰記 ……車靑吾

메터ー制實施와運轉手紛糾眞相 ……玄龍泰

人事消息 ● 海外異聞各種

처음商業하는方法 ……韓昇寅

癩 ……李榮俊

婦人病……朴大陽

童心……李永哲

(※) 朝鮮料理……閔惠植

◇예나大學時代의假裝舞踊會……安浩相
◇白痴舍와白鬼舍……金璁
◇京都에三年……金煥泰
◇孤寂한피에로의獨白……李軒求
◇세人방찻는苦生사리……朴英熙
◇딜다반湖畔의머슴사리……韓昇寅

젊은하이델베르히의追憶

心頭雜草 貧과富 ……金石松

◇現代佛蘭西音樂……金管
◇素人劇의指導……金二三
◇安南風俗……金永鍵
◇畵報及表紙
極美麗

四百頁大雜誌

★

그때그港口의追憶

先山港에남긴約束……毛允淑
어린時節의仁川港……鄭芝鎔
釜山港의첫印象……閔文鎬
燈臺속의處女……玄卿駿
유ㅡ트카의輓歌……姜敬愛
出帆前夜……蔡萬植
C港의一齣……李孝石

東洋의海島說話 ……鷲友山房主人

三大懸賞募集

○懸賞美術寫眞募集 入選每人前十圓씩 佳作 薄謝進呈 注意 應募枚數無制限
○懸賞小說募集 入選每人前卅圓씩 佳作 薄謝進呈 注意 每篇二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
○懸賞實話募集 入選每人前十圓씩 佳作 薄謝進呈 注意 每篇二百字原稿紙五十枚以內
應募期日 九月十日限
注意 應募한것은一切返還치아니함、萬一返還을要求할時는返信料를添付할것 揭載는朝光十一月號에賞金은揭載同時에支拂함

列國重壓下의日本貿易 ……韓普容

滿共同販賣問題 ……張元俊

自由主義經濟의意義 ……徐椿

待望의千金慈雨! 西北各地의沛然!

廿五日現在

西道 平壤地方에는 아즉도未洽足

[平壤] 대망의 일천백만농민의갈우가 이십사일도내쪽에 나려 농민들은 환성을 올니엇섯스나 우량이 극히 적엇기때문에 전작에나 다소해갈되엿슬뿐 신통스럽은 우울해제도 되지못햇는데 이십오일까지도착된 각지의우량은 다음과갓다

◇各地雨量

▲平壤七미리▲中和五미리▲江西九、四미리 ▲中和 五미리 ▲龍岡一四미리 ▲鎭南浦二一、四미리 ▲永柔四미리 ▲安州一〇、八미리 ▲价川四、六미리 ▲順川四미리 ▲成川一二미리 ▲陽德一一미리 ▲德川八미리 ▲孟山二二미리

白川地方에는 田穀解渴겨우

[白川] 삼개월여의 가물로비를기다리든 배천지방은 이십오일정오까지 나린비가 겨우이십륙미리나 되엇는대 이앙치못한논은 아직도가망이업스며 전작에는 매우적당한바 아직까지 비는개이지안코 계속중이라한다

遂安一帶에도 田穀적이解渴

[遂安] 수안지방에는 저간오십일동안이나 이슬(露)까지 한방울오지안코 한발이 극심함으로 군내에 이앙(移秧)은 말할것도 업지만 두태와 옥수수(玉蜀黍)와 무、배채(菜蔬)는 전부말라죽엇고 도처천(川溝)까지말라서 망산용수차(水車)들도 운전치못하게되여 곡가(穀價)는 매일 폭등함으로 큰고통을받는중 지난이십사일 오전오시에 비가 나리기시작하여 일몰시간 강우(甘雨)는 계속하여오는중임으로 일반농민들은 얼굴에 희색이만안(滿顔)하다고한다

北道 咸南一帶에는 南部解渴 北部未洽

[咸興] 마를대로 마르고잇든가뭄에 종종작물에 한방울의 생명수가 귀한감우(甘雨)는 지난이십이일밤부터 함남도일대에 고루 쏘다저 수심에 차엿든 농민들의 수미를 겨우 펼듯하고잇든바 그후 또 개이면흐리면하는 림우(霖雨)로 변하야 조금식 내리기를 계속하드니 그것도 이십오일에 이르러서는 완저히 그치고말엇다 도내각지우량은 安邊三十粍 高原二十粍 文川二十三粍 永興二十一粍 咸興七、五粍로서 남부지방은 어느정도의 해갈은 되엇스나 함흥과 그이북지방은 아모효과가 업다고한다

淮陽地方에는 田穀解渴治足

[淮陽] 회양군지방에는 오래동안 한발과 전대미문의 혹서로 인하야 전군내의 이앙성적이극히 불량하야 미식답이 적지안하며 기식답도 날로 고사하여가는 참상이든바 지난 이십일일오후세시경부터 익일 새벽까지 비가 나리다가 다시 동일밤부터 시작되여 꾸준히 나리는 비에 한발의 아우성도 일소될것이며 각종 밧곡식은 저으기 발육이 량호하야 근래에드문 풍작을 예상한다고한다

三四日繼續降下 雨量적이治足 元山地方農民의歡喜

[元山] 장구한발로말미암아 전답의마곡이 고사의 위긔에 일으러 원산일대 농가에서는 우수에 차여 하늘만 처다보는바 이십이일밤부터 나리기시작한비는 참으로 천금자우로서 삼사일을 련속하여 나리엇는데 이십오일오전까지의 강우량은 실로오십일미리에나 달하여 과연한발의 위긔를 면하여 일반농작물이 소생하엿다는데 이로써아프로 별 시장이업스면 평년작의 풍작은 수확되리라고 농가에서는 깁븜을마지안는다고한다

松禾怪屍事件 他殺嫌疑解消

[松禾] 괴부=괴사체로말미암아 송화경찰서와 검사분국에서 총출동하여 경관대가 사방에활치엇중조사하는일방 송화검사분국 목촌감독서긔(木村監督書記)가의사김대양(金大陽)씨를 대동하고 현장에달려가서 시체를해부한결과 타살(他殺)이아닌것이판명되여 문제는일단락을 지엿다한다

두아이가死傷 蚊帳에引火되여 南原邑에생긴慘事

[南原] 지난이십이일 오후십이시경 남원읍동충리(南原邑東忠里)에서 모긔장(蚊帳)에 등잔불(燈火)이 대고여 세식구가 자다가 황남산(黃南山)의장남 점동(點童)(三)이란 어린아이는 불에 타서 그외일흔 ... 하게되엿고 전긔남산(南山)의녀 제 막내(一)라는 처자는 방금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十五週記念事業에 喜捨金千七百圓 學校發展座談會席上에서 元山海星學校의曙光

[元山] 원산해성보통학교(元山海星普通學校)는 창립이래십오주년을마지하는동안 칠백여명의 졸업생과 또한 현재십사학급에 칠백여명의 무산아동을 대부분교육하여오는터 이학교에대한성원이 너머나 적엇고 너머나들교설하여왓다한다 이에 동교후원회에서는 이학교의발전책에대하야 원산유지들의희망과 의견을듯고저 지난이십사일오후칠시반부터 원산해동원에 유지사십여명을 초대하야 여러가지동교발전에대한 간담을교환한바잇섯는데 동석에모엿든제씨는 자진하야 동교후원회에가입하는동시 동교사업에 적극적으로 정신과물질을 향하야 적극적으로 성원하기를 맹서하는일방 동교가 창립십오주년을맛는 금년을 의의잇게하게하려는의미하에서 그기념사업으로 동교에 리화학교실과 가사과교실을 건축하는데 찬의를표하는동시 즉석에서 다음과가티 희사를하얏다고한다

金景俊二百圓 金景律二百圓 吳錫俊百圓 尹訓用百圓 韓君弼百圓 韓光洙百圓 朴俊錫五十圓 韓泳爽五十圓 全用斌百圓 李亨植百圓 金碩鉉百圓 申泰今三十圓 李福錫百圓 朴章秉五十圓 金楊根百圓 金成鉉五十圓 金龍奎五十圓 李周錫三十圓 孫祚鳳三十圓

鰮魚群襲來로 襄陽沿岸活況

[大浦] 동해안일대를 엄습한괴이한 해류관계로 먼바다에서회유(回游)함으로 수만당업자들을 곤란케하든 정어리(鰮魚群)은 겨우칠월상순부터 근해로접근하야 연안가진에서는 조금식잡는다하거니와 양양일대에도십여일전부터 멜축식의 삭만보고 오더니 지난이십이일에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야 배마다 만선으로 오륙십통식은 무난히 잡는다는바 당업자들은 거뻐마지안는다고한다

架設은곡舊市街에 第二人道橋促進 千二百餘名會衆이雷同絶叫 平壤市民大會經過

◇寫眞……平壤市民大會場光景

[平壤] 제이인도교 가설촉진시민대회는 루보와가티 이십오일오후두시 삼십분부터 백선행기념관에서 개최되엿섯다 우리구시가에 인도교를가설하라고 부르짓고잇는 시민은 정각전부터 회장에 쇄도하여 일천이백여명이 장내를 뷔인틈업시메워버린 가운데에서 준비위원장 정세윤(鄭世胤)씨 사회로 회의는진행되엿는데 경과보고와 취지설명이잇슨후 의장선거에드러가 정세윤씨가 마장일치로 추대되엿다

불을토하는것과도 가튼 연설이 시작되엿는데 여섯 연사는 대동강을 가운대에노코 량안에는 무서운형세로 발전을 하고잇는 반면에 구시가에는 인도교가업서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는 보안상립장으로보아 막대한 손실을당하고 잇슬뿐아니라 구시가 발전상에 큰지장과위협을밧고잇다 일언이 폐지하고 현재평양의 교통긔관은 한편에 두렵고 한편에 엷은 불구상래(不具狀態)를면치못하여잇다 현재의 인도교인 대동교를 가설할때에 제이인도교는 구시가에 가설할것을 당국이 언명한바도잇는만큼 반다시 현인도교상류지역에 제이인도교를 가설하라는웨침이 터저나왓고 각연사의 연설은 귀귀절절이 핏기가 당국의 폐부를찌르는 열변이엇섯는데 장내를떠나보낼듯한 박수성리에서 여섯연사의 연설은 끗막어젓다

십팔만부민의 총의(總意)를표시하는 결의문(決議文)을 다음과가티 결의하엿는데 이결의문은 총독 총감 내무국장 재무국장 토목과장 지방과장에게 긴급전보를 치는일방진정위원 오씨를 선거하여부와 도에 선처를 진정키로되엿다

이리하여 우리평양 구시가에 제이인도교를 가설하라는 결의를하는일방 목적관철하기까지 실행위원회를 설치하야 최후일각까지 분투하기로하고 오후네시 삼십분 산회하엿다 이날의 연사와 진정위원은 다음과갓다

◇이날의演士 ▲田德龍▲尹 ▲鄭仁淑▲朴承億▲金東元▲金昌燁▲李永漢

◇陳情委員 ▲田德龍▲尹永善▲金東元▲朴承億▲李應鎬

◇決議文 我平壤의 第二人道橋架設은 只今一刻을 遲延치못할 焦眉의緊急한일이다 方今府勢는 急激한 發展의途에잇고 特히 現在의人道橋上流地域은 非常한不便을느기어 日夜交通의安全을 期하기難한狀態이다 그러므로 本會는 熱誠을 披瀝하여 期必코 明十二年度豫算에此에對한 架設費計上으로 當局에 要望하여 所期의目的을 貫徹하기를期함

晩時의歎은不無나 移秧은全部될터 江華의昨今雨量七十미리

[江華]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는 늣게 오기시작하야 지난 이십사일 오전네시부터 동일정오까지 온 우량이 륙십이미리로 전강화를 통하야 이천정보의 이앙치못한 천수답에 우슴에 빗츨 띄엿는바 이것도 부족으로 일천정보 미만밧게는 이앙치 못할것이라는데 아프로좀더 우량이온다면 남어지도 모ㅣ다 이앙을 하리라하야 하날만 처다보고 잇는바 과연 억일업시 이십오일오전 한시십오분부터 나리는비는계속하야동일오전열시까지 십사미리의비가왓고 아프로도 상당한 우량이잇슬듯한바 기뿐가운데도 눈물겨운사실은 대용물노 콩과 메밀등속을 심엇다가 도로가라 업는 눈물겨운 사실괴 강화군청에서는 인천(仁川)과 연백군(延白郡)등으로 대용작물을 장려코자 불소한 자금을 드려피(稗)와 메밀(蕎麥)등의 종자를 구입코자 수배중에잇는것을 해제하리라구 일대소동을 일으키는듯하엿대 희비극을 연출하야 과연 본는사람으로하야금 눈물을 금치못하게하얏다

咸南道의明年度計畫 五都市에五個校 都市簡易學校

[咸興] 종래농촌에만 설치하고잇든 간이학교(簡易學校)를 도시에도 두기로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우선제일착으로 명년도에 함흥(咸興) 원산(元山) 북청(北靑) 혜산(惠山) 흥남(興南)의 오개도시에 간이학교를설치하기로 되엿는대 다음과갓다

▲咸興駒馬臺公普校附設 雲興簡易學校
▲元山第一普校附設 南山簡易普校
▲北靑公立普校附設 靈德簡易學校
▲惠山鎭公普校附設 惠山簡易學校
▲興南公普校附設 天機里簡易學校

安州支局後援 全關西蹴球戰

[安州] 안주읍내 유신서관운동부(維新書館運動部)에서는 오는 팔월구일에 전관서축구대회(全關西蹴球大會)를 본보안주지국후원하에 안주공립보통학교교정에서 개최한다는바 일반은 만흔 긔대를가지고 잇다고한다

平壤府內赤痢 廿四日또三名

[平壤] 희유의혹염과 싸우는평양부내에는 전염병이 침략하여 십팔만부민을 전전긍긍케하고잇는데 이십사일 한거번에적리환자 세명이발생하엿다 전염병실의 대만원으로 할수업시 환자의집에 교통차단을하고 적리환자수가 증가하는중이다

可恐! 工場作業員의 悲慘한生活裡面 過勞、不衛生으로殆半이不健康 全南道內各工場調査

[光州] 전남도내의 작년말현재의 공장사항조사표를 보면아래와갓다 정미소(精米所)광산(鑛山)등을제외하고 조면(繰綿)제사(製絲)직물(織物)방적(紡績)고무공장등 순연한 산업공장이대로 직공이 십명이상 사용하고잇는 공장수가 팔십칠개소이며 그에종업하고잇는 노동자수가 륙천사백팔명으로 그중 녀직공수가 사천이백여명이며 남직공이 약이천여인데 년령별로보면 남녀를물론하고 십륙세가 최다수로 녀자이천칠백사십칠명이고 남자일천일백오십오명으로 그다음은 십오세로서 최초직공으로 채용시에 신체검사를밧고 거강한몸으로 일단입사한후 과도한 로동으로 인하야 독한질병에걸려 무참하게 희생당한수가 일천이백이란 놀라운수자이라는데 그년령별을보면 십오세가 제일다수로 일천일백이십칠명이、병마의진찰회를보고 직업별로보면 방적(紡績)어직공 팔백십명과제사(製絲)어직공 삼백이십사명의대다수로 각공장 로동시간을보면 제일적게 로동한곳이 팔시간인데 단한곳밧게 업스며 로동시간이 십이시간이상되는 공장이 오개소나되고 그외에는 하로 십이삼시간로동이 보통으로 그들의 생활에는 로동법이 어서속히 실시되기를 바라고잇다한다

굼주린流浪少女 강물마시다溺死 "룸펜의旅舍"水車場서생긴慘事 —江陵郡下玉溪에서—

[江陵] 가난한집에태어나 굶주림을 못참아 비명에죽어다면 이얼마나 빼저린일이아닐가 본적강원도영월군상동면상리(寧越郡上東面上里) 김응식(金應植)이라는 중로인은 년전의 대홍수시에 가산이전부업서지고 겨우가족의 목숨만이 구할을 바덧다 그러나 변변한 그는 무한애를써도 하로의 살길을 구할수가업서서 할수업시 가족을 데리고 구걸의길을 떠나 지난 십팔일 강릉군 옥계(江陵郡玉溪)에까지왓다 그러나 만흔가족의 그들은 꿋꼿의 『물방아간』에밧게 잘곳이업섯다 이곳에와서도 그들은 시내안물네방아집에 여장을풀고 평시와가티 어린것을 방아간에 남겨두고 부부는 구걸 나갓다가 얼마후 도라와서 딸 순녀(順女)를 부르면서 드러가보죽 종적이업슴으로 크게 놀나사방을 도라살펴보니 순녀는 무참하게도 물방아간기픈물에 빠저슴을발견하고 곳끄내어 별수단을다썻스나 죽은지이미오랜시간이 지난지라 영영소생치못하엿다 차듸찬시체를 껴안고 그들의 애통하는모양은 목불인견이엇섯스며 의사의 원인은 확실히알수업스나 종일굶주림에는 한업시흐르는 시내물이 꿀물이상으로 생각이되여 물을마시려다 실족하야 기픈물에빠저 홀로 헤매다가 무참하게도 죽은것이아닌가 추측된다

第十三回教育總會

[全州] 지난이십사일오전열시에 전주소학교강당에서 제십삼회전북교육총회를 개최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吳致泳氏(廣德醫院公醫)今般新任人事次 本社白川支局來訪

清津

渡歐告別 趙澤元舞踊會

▲時日 八月一日午後八時
▲場所 清津公會堂에서
◇主催 朝鮮日報社清津支局

鎭興

洋裁縫講習會

▲時日 八月五日부터同十四日까지
▲場所 鎭興禮拜堂
◇主催 朝鮮日報鎭興支局

安東縣

夏季修養講演大會

▲時日 自八月四日 至八月九日
▲場所 京義線枏峴敎會堂
◇主催 基督青年枕勵會美山聯合會
◇後援 朝鮮日報安東縣支局

原料香水 (원료향수)

オリヂナル香水 (오리지나루향수)

世界의名花의香기三十八種이잘調和되여잇는!

여름더위와 피로를이즈시랴면!

상쾌하고 서늘한 기분을 만들어주는 オリヂナル香水에 한합니다

땀배오르는여름의몸내를업새는 오리지나루香水의한방울은 夏季의社交上절대필요합니다

體溫을이용하야그比類업는조흔향기를놀나게하며또한쓰시는데경제가되는實用新案『香氣容器』를쏙한번試用하여주십시요

지금全道各地의販賣店에서

流線型의 高尙優美 携帶至便 『香氣容器』를 오리지나 香水小瓶한개를사주시는분에게 즉시거저드립니다

販賣店에賣切된때에는오리지나루香水小瓶(定價五十錢)의것봉(空筒)한개와三錢切手한장을封入하시고左記本舖로付送하여주시면곳右記容器를진정하옵나이다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安藤井筒堂景品部